

조선 최대문서 '이십공신회맹축' 국보 됐다

숙종때 공신 충성 맹세 서약 '고려사' 6건은 보물 지정 '홍길동전' 원간본 첫 발굴도

17세기 서인과 남인의 정쟁으로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신들의 충성 맹세를 담은 조선 최대 규모 문서인 '이십공신회맹축'이 국보로 승격됐다. 총 길이 24m에 달하는 이 문서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보로 승격된 조선 최대규모 문서 '이십공신회맹축'(앞부분)

또한 고려시대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정리한 '고려사' 6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 고대와 조선 관련 중요 문헌들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번 '고려사' 보물 지정은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 사료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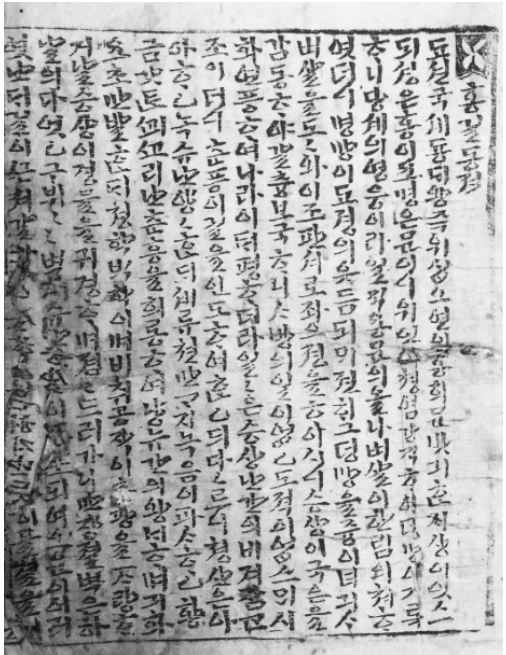
아울러 19세기 중반 전주서 간행한 '홍길동전' 원간본(초간본) 2종이 처음으로 발굴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은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서약이 담긴 왕실문서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 녹훈후'를 국보로, 고려의 문물과 제도 등 풍부한 자료가 수록된 '고려사'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 국보로 승격된 '이십공신회맹축'은 1680년(숙종 6) 8월 30일 열린 회맹제(會盟祭)를 기념하기 위해 1694년(숙종 20) 제작됐다. 회맹제는 임금이 공신들과 함께 천지신명에게 지내는 제사를 지칭한다.

이 의식에는 왕실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림들에게 내린 공신(功臣) 중 개국공신부터 보사공신(保社功臣:지위가 복속된 공신)에 이르는 역대 20종의 공신과 그 자손들이 참석해 충성을 맹세했다. 회맹제가 거행된 시기와 회맹축을 조성한 시기가 다른 것은 당시 정치적 변동 때문이었다.

문화재청은 "서인과 남인의 정쟁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며 "공예품의 백미로서 예술성



원판 '홍길동전' 원간본 36장본

또한 우수해 국보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고려사'는 역사·학술·서지적 가치를 검토한 결과에 따랐다.

현존 판본 중 가장 오래된 을해자 금속활자본과 목판 완질본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을해자 2건, 목판본 2건) 소장본을 비롯해, 연세대 도서관(목판본 1건), 동아대 석당박물관(목판본 1건) 등 3개 소장처에 보관된 총 6건이다.

문화재청은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됐지만 고려시대 원사료를 수록해 사실관계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과 해당 판본들이 지금까지 전해진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자 목판 번각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이밖에 19세기 중반 전체 내용이 갖춰진 완판 '홍길동전'의 원간본(초간본) 2종이 최초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전주의 대표 방각본 출판사인 완서(完西)와 완산(完山) 두 곳에서 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충동 강원대 국문과 교수는 인천과 강릉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완판 '홍길동전' 원간본 36장본과 35장본을 각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완판본은 전주에서 간행된 책을 말한다. 홍길동전은 서울에서 인쇄된 경판본 외에 안성판본, 완판본, 필사본 등 네 종류가 있다.

조선 후기 소설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목판으로 인쇄한 '방각본 소설'이 출현했는데, 서울과 안성 그리고 전주처럼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간행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중국 13개 도시 역사·문화·사람 이야기

윤종선 슈퍼맨비뇨기과원장 '슈퍼맨 윤씨의...' 펴내



고 그들 특유의 중화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대륙적인 영향으로 인내심이 강할 뿐 아니라 체면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는 무관심하며 실질적인 것을 추구한다.

"중국인은 모든 것이 순조로움을 나타내는 짝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결혼식과 생일날의 선물은 꼭 짝수로 한다. 경사스러운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례식처럼 슬픈 일에는 부조금도 홀수로 한다. 불행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나라는 뜻에서다."

중국의 대표적인 13개 도시의 역사, 문화, 명주(名酒), 사람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발간됐다.

저자는 현직 비뇨기과 의사인 윤종선 슈퍼맨비뇨기과 원장. 윤 원장이 최근 펴낸 '슈퍼맨 윤씨의 중국이야기' (헬시은)는 왕성한 교류 현장 이야기와 아울러 중국 특유의 문화적 이해에 대한 단상 등을 담았다.

한중완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추천사에서 "저자는 가는 곳마다 긴밀한 인연과 뛰어난 의술로 중국 의료인들을 사로잡으며 융성한 환대와 진한 우정을 나누다"며 "명색이 중문과 선생인 본인보다 중국에 대해 더 전문적이고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넘치게 풀어놓는다"고 말했다.

저자가 처음 중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8년 학회 참석차 연변에 가면서였다. 이 후로 학회 카데마 실습과 국제학회 발표 등으로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한류열풍이 불었다. 이와 맞물려 비뇨기과 남성수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저자는 자문 초청을 받아 북으로 시베리아 별판에 있는 다칭에서부터 남으로 동구안까지 13개 도시를 중환무진 다녔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평생 하지 못하는 3가지가 있다. 중국 국내를 다 가보지 못하며,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 보지 못하고, 지역 명주를 다 마셔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만큼 면적이 넓

책에 등장하는 도시들은 소림사와 판관 포정천의 고장 정저우를 비롯해 탄광산업의 메카 탕산, 소설 '삼국지'의 배경 청두, 중국 최대 석유생산지 다칭, 만주국의 '새로운 도시'로 불렸던 장춘이 소개된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드리워진 선양도 있다. 이곳은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등이 불잡혀 있던 곳이다.

음식, 술과 관련한 풍습은 중국을 알고자 하는 이들은 참조할 만하다. 일례로 식사 초대를 받아 방문해서는 맞았다고 음식을 다 비우면 안 된다고 한다. 주인 입장에서 "음식을 적게 준비했구나"하는 자책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손님이 취하는 것은 실례가 되지 않는다. 특히 북방 지역에서는 주인이 손님을 잘 대접했다는 생각에 기뻐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사업하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서로에 대해 파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중국인은 이처럼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다"고 조언한다.

한편 책 곳곳에는 남성의 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등도 담겨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주제 포럼

23일 온라인 세차레 진행 주한독일문화원 후원

셈할 수 없는 것'은 철학자 욱 후이의 강연과 큐레이터 카렌 사르키소프의 대담으로 진행된다. 세번째 세션(오후 6시)은 '지성의 대사 상태'를 주제로 알고리즘적으로 생성된 정보 피드가 오늘날 학습과 대응의 기제로 여겨지는 현상의 철학적, 윤리적 함의를 되짚어 본다. 또 이를 통해 탐구한 기계 지능과 확장된 마음도 살펴본다. 참가자는 기술연구가이자 저술가인 마야 인디라 가네쉬, 철학자 마테오 파스쿠넬리, 비엔날레 참여작가인 안무가 드미트리 파라뉴시킨 등이다.

오전 11시 '떠오르는' 영혼: 한국의 반체계적 친족 관계를 주제로 열리는 첫번째 세션은 신체를 다루는 관행, 의례의 체계, 집단적 돌봄의 형성을 살펴본다. 인류학자이자 큐레이터인 로렐 캔달과 양승중 사마니즘박물관장, 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의 윤열수 관장, 김성례 종교학자 등이 참여한다.

오전 5시30분 열리는 2부 '계산할 수 없는 것과

포럼은 비엔날레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한편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39일 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이외에 국립광주박물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극장 등지에서 개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음악협회 회장에 운영문씨 선출

광주음악협회 제12대 회장에 운영문(사진)씨가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까지 3년이다. 윤 신임회장은 지난 20일 광주예총회관에서 열린 광주음악협회 정기총회 차기회장 선거에서 1044표 중 612표를 얻어 이정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 신임회장은 "광주음악협회 회원 모두가 앞으로 건강하게 화합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 내 음악학과 졸업생들을 비롯해 생활음악인들, 사회취약계층 음악인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협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순수, 실용, 국악의 콜라보공연 등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연을 개발하고, 컴퓨터음악, 유튜브 라이브, 음반제작, 공연기획 등을 다루는 세미나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윤 신임회장은 이밖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광주 동신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윤 신



임회장은 광주MBC 어린이합창단 상임지휘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등 4개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광주음악협회 제8대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합창총연합회 부이사장, 광주북구합창단 상임지휘자, 광주오페라단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